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1월 04일 · 제330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의약품의 해상운송 증가에도 불구하고, 신중한 접근 필요
2. 로테르담 항, 중국은행과 파트너십 맺고 '1대1로' 참여
3. 유럽부흥개발은행,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건설 자금 대출
4. CEVA, 브라질 화장품 물류시장 사업 확대

| 물류시장동향 |

1. Gramercy Europe, 네덜란드 콜드체인 저장시설 매입
2. DP world, 세네갈에 물류자유지역(LFZ) 개발 예정

| 공지사항 |

1.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
2. 중소·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의약품의 해상운송 증가에도 불구하고, 신중한 접근 필요

- 수년간 물류창고와 생산 설비를 재배치 한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AstraZeneca사는 작년 초 자사의 냉장 화물을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함
 - 그 결과 2014년 말까지 자사 운송량의 절반 이상을 해상으로 운송했는데, 이는 2010년 전체 화물량의 90%를 항공으로 운송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임
 - 올해 AstraZeneca사는 운송 물량의 70%를 해상으로 운송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
- 제약회사의 글로벌 물류 카테고리 리더인 Julian Wann씨는 AstraZeneca사가 해상운송의 다양한 장점 때문에 현재 의약품의 운송수단 중 하나로 해상 운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함
 - Julian Wann씨가 기자와 산업분석가들에게 항공 운송이 의약품의 공급사슬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AstraZeneca사는 해상운송을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밝힘
 - 그는 제약회사들이 해상운송을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운송비, 강화된 냉장 능력, 탄소 배출량 저감 기회 및 안전사고 우려 감소와 같은 장점 때문이라고 언급함
 - 조만간 종합물류회사 Yusen Logistics사는 AstraZeneca사와 유럽과 호주간 처방 약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
 - 제약회사인 Baxter Pharmaceuticals사는 해상 운송을 공급사슬관리를 위해 각종 운송 수단을 통합 · 연계하는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
- 제약 산업은 역사적으로 지극히 시간에 민감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, 최근 외부 환경 조절 및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된 냉장컨테이너 개발과 제약회사들의 경영여려움이 겹쳐 운송수단을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 전환하고 있음
 - 최근 수많은 제약회사들간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연방 정부의 건강 관리 분야의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크게 인하되었음
 - 거대 제약회사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결정적 이유는 등록된 많은 상표 브랜드들의 저작권 보호가 해제됨으로써 복제약품(generic drug)을 만드는 제약 회사들과의 경쟁 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임
 - 이로 인해 공급사슬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제약 회사들이 공급사슬관리를 통한 운영효율성 확보가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됨
- 제약물류의 해상운송 전환은 선사 및 냉장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



공하고 있지만 보험문제 같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- 머스크선사의 글로벌 냉장물류 이사인 Ole Schack Petersen씨는 우리는 제약물류의 해상운송 전환은 기쁘지만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언급함
- 전형적으로 의약품 컨테이너의 순수 가치를 따져보면 의약품의 해상운송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운송 문제라고 밝힘
- 의약품의 해상운송 전환은 선사에게 커다란 기회인 동시에 기존과 다른 보험과 부채 등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라인은 제약물류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함

자료 : www.joc.com, 2015.10.12.

이연경 전문연구원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

로테르담 항, 중국은행과 파트너십 맺고 ‘1대1로’ 참여

- 유럽 최대의 항만 중 하나인 로테르담 항만이 중국은행(Bank of China)과 전략적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함께 찾기로 했음
 - 양측 MOU는 로테르담 항만당국의 알라드 카스텔레인 최고책임자와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장 동 웨이지안 사이에 체결됨
 - 로테르담 항만은 항만 물동량 기준으로 유럽 최대의 항만이며, 1912년 창립한 중국은행은 현재 중국 최대 금융 기관의 하나로서 중국 본토 외에 해외 41개국에 진출해 있음
- 로테르담 항만과 중국은행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야심찬 “1대 1로” 전략의 본격 실시로 물류, 컨테이너선, 해운, 철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확장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따른 것임
 - 1대1로 계획에 따르면, 중국의 ‘해상 신 실크로드’는 전통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노선과 향후 북극해항로(NSR)가 상용화될 경우 북극해를 거쳐서 유럽에 도달하는 노선의 2개가 있음
 - 중국에서 출발시, 전통항로나 북극해항로 모두 ‘1로’(해상 신 실크로드)의 종점은 유럽의 로테르담으로 설계되어 있음
 - * 북극항로 이용시, 중국 다렌을 기점으로 했을 때 로테르담까지는 전통 항로에 비해 9일이 단축됨(총 27일 소요)
 - 2013년 8월 중국 COSCO의 ‘용성호’가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중국 타이창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14,688km를 27일에 걸쳐 시범 운항한 바 있음
- 로테르담항과 중국은행은 이와 더불어 교역량 확대, 물류 체인의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신규 투자도 기대하고 있음
 - 중국측은 유라시아 및 유럽의 신흥 국가들과의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도 물류 인프라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로테르담 항만 당국의 설명임
 - 로테르담 항측은 특히 중국의 “1대1로”로 상징되는 해륙 복합 운송망의 새로운 연계망의 형성에 로테르담 항이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이번 로테르담항과 중국은행의 MOU 체결은 “1대1로” 전략 실현의 중점사항인 “금융통”의 일환으로, “1대1로”의 목적 하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간주할 수 있음
 - “1대1로” 인프라 협력을 위한 자원 조달은 AIB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
 - 이와 별도로 중국계 개별 은행의 유럽 금융업 진출도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5.10.30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6994, sjpark@kmi.re.kr



유럽부흥개발은행,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건설 자금 대출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과 국제금융공사(IFC)는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임
 - 이 터미널은 민간이 건설하며, 우크라이나 유즈니(Yuzhny) 항만에 건설될 예정임
 - 유즈니 항만은 우크라이나 3대 항만 중 하나임
- 두 국제기구는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MV Cargo사에 제공할 예정이며, 현재 4,100만 달러의 시니어론(Senior loan) 및 담보부대출(Secured loan)을 검토 중 에 있음
 - MV Cargo는 본 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임
-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위원회 서명 날짜를 금년 12월 9일로 잡고 있음
- 이번에 건설될 터미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 예정이며, 연간 5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임
- 본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총 1억 4,340만 달러임
- MV Cargo사는 Cargill사 및 우크라이나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
 -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Cargill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식품, 농업, 금융 및 산업 프로젝트 공급자 중 하나임
 - 우크라이나 항만공사는 자국의 항만 및 인프라의 개발과 유지관리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
- 우크라이나는 이번 터미널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곡물 수출량을 두 배로 증가시킬 계획임
 - 2013년 곡물 수확량은 총 6,300만 톤임
-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만의 곡물 터미널 건설을 위해 작년에 Brooklyn-Kiev 하역회사에 6,000만 달러를 대출한 바 있음

자료 : www.ijglobal.com, 2015.10.27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CEVA, 브라질 화장품 물류시장 사업 확대

- 글로벌 물류기업인 CEVA 로지스틱스는 화장품 유통 업체인 세포라(Sephora)와 신규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음
 - 세포라는 명품 화장품 그룹인 LVMH(Moët Hennessy Louis Vuitton)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반의 화장품 소매업체임
- 이번 계약은 세포라 브라질 유통과 관련된 것으로 CEVA는 기존의 세포라가 사용하고 있던 40여개의 유통 포인트를 상파울로(São Paulo) 외각에 위치한 CEVA 물류센터로 통합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
 - 계약에 따라 CEVA는 세포라가 다루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, 향수, 헤어제품, 바디용품, 액세서리 등을 비롯하여 세포라 자체 브랜드인 'Sephora Collection'의 제품들을 취급할 예정임
 - 이에 따라 CEVA는 세포라의 요구 사항 충족과 화장품류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물류센터 내의 온도 조절 시설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 - 물류센터가 완공되면, 7천여개 이상의 SKU¹⁾ 보관 및 처리를 비롯하여 연간 300만개 이상의 개별 주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CEVA는 세포라의 브라질 내 보관, 인바운드·아웃바운드 물류 및 역물류에 이르는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- 세포라 브라질 공급망관리 분야의 Fabio Goncalves 책임자는 “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CEVA와의 제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하며, “CEVA는 세포라가 필요로 하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수반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언급함
 - 또한 “이번 제휴를 통해 CEVA와 세포라의 브라질 내 시장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덧붙임

자료 : www.cevalogistics.com, 2015.10.26.

손보라 연구원
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

1) SKU : stock-keeping unit, 상품-재고관리를 위한 최소 분류단위, 또는 개별적인 상품에 대해 재고 관리 목적으로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 관리 코드를 의미함.



물류시장동향

Gramercy Europe, 네덜란드 콜드체인 저장시설 매입

- 부동산 투자회사인 Gramercy Europe은 1,700만 유로를 투자, 네덜란드 브레다(Breda)에 위치한 콜드체인 저장시설을 매입함
 - 시설규모는 121,000m²이며, 추가로 올해 12월까지 85,000m²를 확장할 예정임
 - 본 콜드체인 저장시설은 2025년까지 Mooy Logistics사에 임대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, 화훼류 등을 저장할 예정임
- Gramercy Europe는 이번 매입과 같이 화주 맞춤형 물류센터 개발(BTS: Build to Suit)을 통해 유럽 전역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 - 지난 8월 Gramercy Europe는 네덜란드 Oud-Beijerland에 위치한 24만 m²의 물류창고를 1,400만 유로를 투자해 인수한바 있음

자료 : <http://supplychain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/>, 2015.10.23.

김은미 연구원
051-797-4778, usea1004@kmi.re.kr

DP world, 세네갈에 물류자유지역(LFZ) 개발 예정

- DP world社は 세네갈과 물류자유지역(LFZ; logistics free zone)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
 - 개발지역은 세네갈 수도 Dakar의 Blaise Diagne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함
 - 물류자유지역 운영을 위한 최신식 장비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임
 - 세네갈 노동자의 직업창출과 경제 성장, 사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
- DP world社 회장은 물류자유지역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
 - DP world-Dakar 컨테이너터미널은 2011년 11월 이후 이전의 2배에 달하는 60만 TEU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
 - 물류자유지역은 Dakar 터미널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임
 - Dakar 터미널은 200명 이상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세네갈인에게 기술 및 효율성 전수 효과를 보일 것임
 - DP world는 금년 11월부터 로테르담항에 APL, HMM, MOL, CMA-CGM과 공동으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(RWG, Rotterdam world Gateway)을 운영 개시할 예정임

자료 : www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, 2015.10.26.

황윤희 연구원
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



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 방안 세미나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2월 1일(화), 09:40~12:00
- 장소 : (서울)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교육 프로그램
 - 한중 FTA 新 비즈니스모델 활용방안
 - 한중 FTA 협정 내용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
 -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가치사슬 창출방안
 - 한중 FTA를 활용한 신규 가치사슬을 창출 및 이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
- ※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
- 참가신청 : 2015년 11월 29일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bora62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손보라 연구원(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- 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 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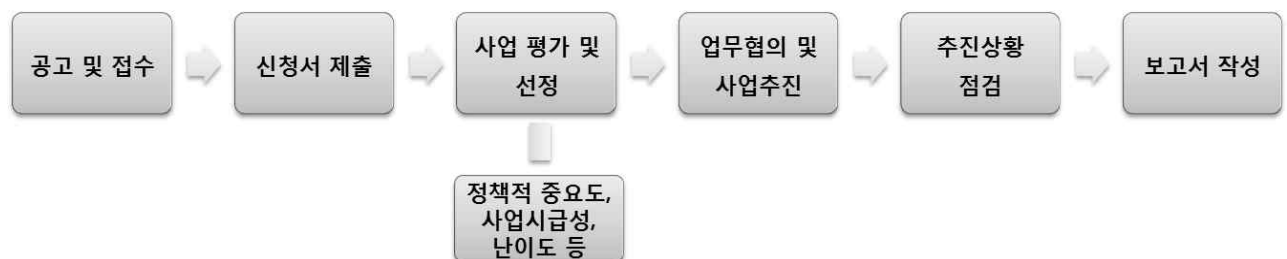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 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시급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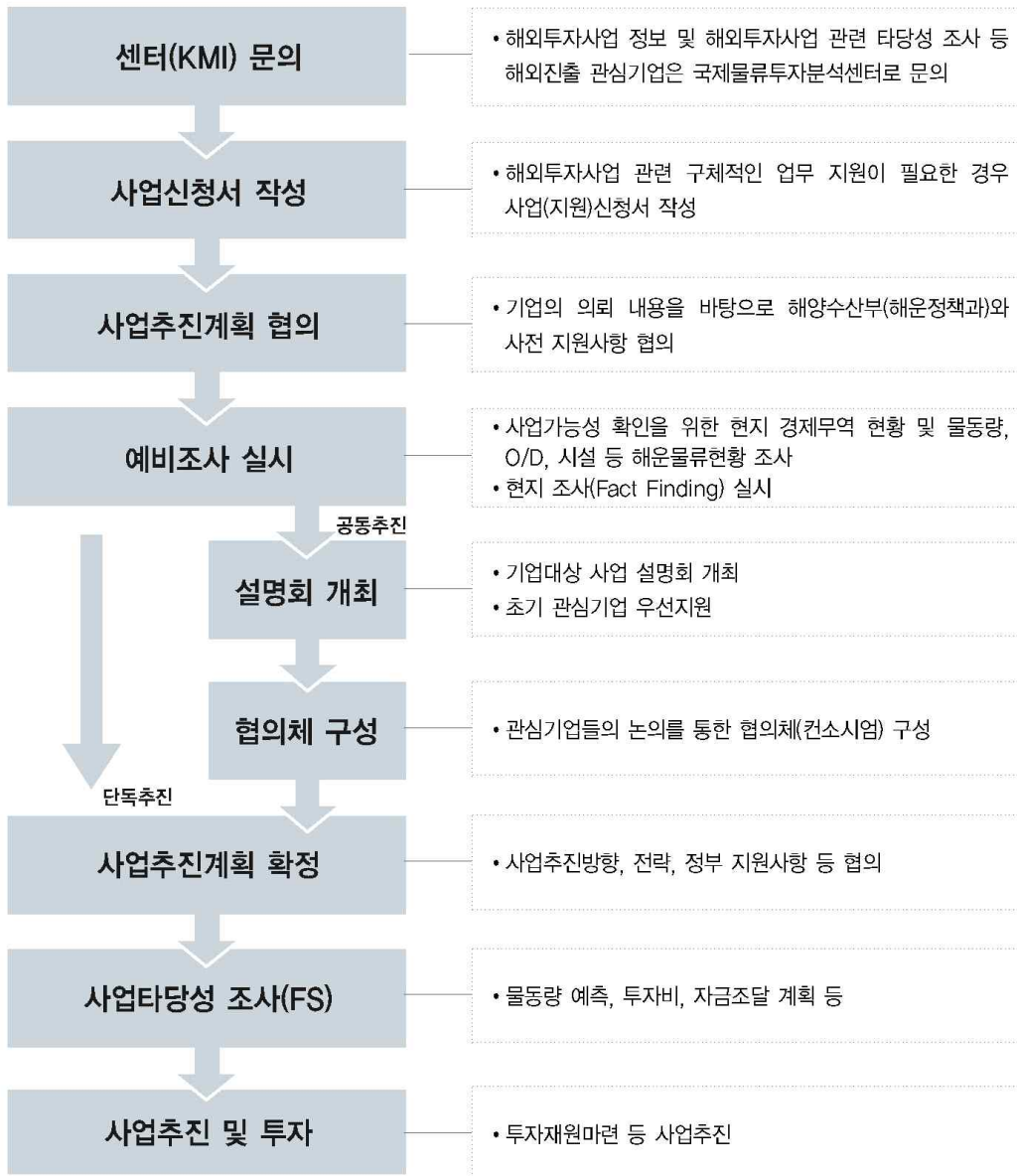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